

자기보고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과 커플관계 질의 관계*†

임 아 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과학연구소 교수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기 및 상대방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고,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를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200쌍의 미혼 커플과 부부를 대상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에 대한 이자간 평정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자신의 다름 수용 태도가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가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커플관계 질을 높게 보고했으며,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파트너의 지각이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커졌다. 이어서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 지각에 있어서 나타나는 정확성과 편향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자신의 다름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유사성 편향을 보였으며, 파트너의 자기보고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를 평정하는 정확성을 보였다.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크게 나타났고,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점수보다 낮게 평정하는 부정적 지향성 편향은 여성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커플관계 질, 지각의 정확성, 지각의 편향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훈진,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교수, Tel: 02-880-5997, E-mail: hjlee83@snu.ac.kr

커플관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Berger & Hannah, 1999; Coleman et al., 2013),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즉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는 건강하고 동등한 커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커플관계에서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BCT) 모델을 제안하였다. IBCT는 전통적 행동 치료에 수용의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치료 모델로, 커플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수정하기에 앞서, 파트너 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Jacobson et al., 2000). IBCT의 창시자들은 대다수의 커플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차이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전통적 행동치료는 이러한 궁극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방식이나 문제해결 전략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차이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IBCT는 전통적 행동치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파트너 간의 근본적인 성향과 가치관의 차이 등은 완벽히 제거되기 어렵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제3세대 심리치료의 부흥과 함께 IBCT는 다양한 커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로 권장되고 있으며(Mairal, 2015), 국내에서도 IBCT 이론에 기반하여 커플관계에서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ADCRS)가 개발되었다(임아영, 이훈진, 2020). 임아영과 이훈진(2020)은 커플 치료에서 수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많은 커플 대상 치료에서 수용을 함양하기 위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이기복, 2006; 이선희, 임성문, 2013; 정교영, 신희천, 2007),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DCRS를 개발하였다. 기존에 IBCT 그룹에서 파트너 행동에 대한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파트너 행동 빈도 및 수용 가능성 척도(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 이하 FAPBI; Christensen & Jacobson, 1997)를 개발하였으나, FAPBI가 측정하는 수용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점, 파트너의 특정 행동에 대한 수용도를 개별적으로 평정할 뿐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FAPBI의 구조상 파트너에 대한 수용이 마치 파트너가 특정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달린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수용의 의미를 오도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 도구로서 ADCRS가 개발되었다(임아영, 이훈진, 2020).

임아영과 이훈진(2020)의 연구에서 ADCRS가 측정하는 다름에 대한 수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름을 통해 친밀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되었다. ADCRS는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 요인인 ‘다름에 대한 인내’는

서로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불편을 견디는 능력을 의미하며, 두 번째 요인인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는 상대의 관점에서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상대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를 말한다. 세 번째 요인인 ‘다름에 대한 존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며, 네 번째 요인인 ‘다름을 통한 성장’은 다름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름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는 다름으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생각 및 정서로부터 거리를 두고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듯 다름에 대한 수용은 서로의 차이로 인한 불편을 참고 견디는 차원의 소극적 수용을 넘어서, 더욱 친밀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향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임아영, 이훈진, 2020).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ADCRS의 5요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우수하며,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아영, 이훈진, 2020).

ADCRS를 통해 측정된 다름에 대한 수용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신경증이나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같은 성격특성 및 갈등해결전략 같은 행동적 요소보다 커플관계 만족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커플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임아영, 이훈진, 2020, 2021).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양방향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커플 교제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기보고 자료를 단편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CRS를 활용하여,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기 및 파트너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검증하였다.

커플관계에서는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파트너의 특성,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지각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자신과 파트너의 커플관계 질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역동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효경, 김은하, 2017; Jackson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플이 각자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를 평정할 뿐 아니라,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평정하도록 하고, 이를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측정치로 삼았다. 이렇게 얻어진 쌍자료(dyadic data)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그리고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이 양자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Kenny(1996)가 고안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사용하였다. APIM은 연인이나 부부 같이 상호 비독립적인 양자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한 모델로, 자신의 어떤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Actor effect)라고 하고, 상대방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Kenny, 1996). 본 연구에서는 자

신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로,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와 자신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이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효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커플관계에서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방효과는 대체로 남성의 특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숙, 김영희, 2012; 김아영, 조영주, 2018). 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 또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여성은 관계 중심적으로 사회화되어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쉽게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특성이나 반응에 영향받는 면이 클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과업 중심적으로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관계 내에서도 파트너로부터 영향받기보다 자신의 특성이 크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사회적 권력이 약한 여성은 커플관계에서 파트너의 특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시사된다(김아영, 조영주, 2018; 조영주, 2017; Caughlin & Scott, 2010; Thomas & Fletcher, 2003). 본 연구에서는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도 이러한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자신과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뿐 아니라,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도 서로의 커플관계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

각’은 파트너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ADCRS를 통해 다름 수용 태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 다만, 파트너의 공감 수준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파트너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지각할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조영주, 2020; Cramer & Jowett, 2010; Larned, 2006), 파트너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지각할 때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응이 줄어들면서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Oathout, 1987). 우리가 커플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중 하나는 친밀한 대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한소영, 신희천, 2006). 이를 고려할 때, 파트너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이 커플관계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하였다. 이를 위해, West와 Kenny(2011)가 제안한 진실과 편향 모형(Truth & Bias Model)을 바탕으로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 지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각적 특징을 탐색하였다. 진실과 편향 모형은 이자 관계(dyadic relationship)에서 상대방의 특성을 지각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적용하여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 지각의 정확성, 유사성 편향 및

지향성 편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지각의 정확성(perceptual accuracy)은 상대를 지각할 때 실제에 근거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행동하는 사람의 자기보고를 실제 점수의 기준으로 삼으며, 지각의 정확성은 특정 속성에 대한 실제 자기보고 점수와 파트너가 지각한 점수 간의 상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Fletcher & Kerr, 2010; West & Kenny, 2011). 따라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과 파트너 스스로가 평정한 다른 수용 태도의 상관이 높을수록 정확한 지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각의 유사성 편향(perceptual similarity bias)은 파트너의 특성을 지각할 때,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각이 편향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높게 지각한다면,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플관계에서 파트너를 자신과 유사하게 지각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는다고 느끼거나, 파트너와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Murray et al., 2002). 마지막으로, 지향성 편향(directional bias)은 파트너의 특성을 지각할 때, 파트너의 실제 보고에 비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West & Kenny, 2011). Fletcher와 Kerr(2010)는 메타분석 연구를 통하여, 지각되는 특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긍정 편향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정 편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의 성격특성, 파트너의 의도나 정서 상태, 과거 사건이나 관계에 대한 기억, 미래 관계에 대한 예측에서는 긍정 편향이 일어나는 경향

이 있으나, 파트너의 신념이나 태도, 행동과 같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질에서는 부정 편향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Fletcher와 Kerr(2010)는 상호작용 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편향되게 지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커플관계 유지 측면에서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파트너의 개인적 특질이나 관계에 대한 기억, 미래 예측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커플관계에 별다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면, 용서나 감사 같은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파트너의 반응이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덜 민감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덜 기울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조영주, 2017). 이를 고려할 때,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에서도 이러한 부정 편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점수에 비하여,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점수를 낮게 평정한다면, 부정 편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각의 정확성,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향성 편향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Thomas와 Fletcher(2003)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나 심리 내적인 면에 대해 관심이 많고 더 민감하므로 상대방을 더 정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Hall(1984)은 여성이 남성이 비해 지각의 정확성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이 남성 파트너를 정확하게 지각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Fletcher와 Kerr(2010)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일반

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동기나 지각 능력에서 성차가 없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지각의 유사성은 대체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영주, 2017; 조영주, 심은정, 2017; Priem et al., 2009).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커플관계 내에서 권력의 열세에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파트너의 생각, 감정 및 상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남성은 대개 자신의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신을 참조로 상대를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아영, 조영주, 2018; Caughlin & Scott, 2010). 마지막으로 지향성 편향과 관련해서 Fletcher와 Kerr(2010)는 상호작용 특질을 지각할 때, 여성에게서 부정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여성은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영향받는 면이 크기 때문에,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의 자기보고에 비해 파트너의 특질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조영주, 2017).

본 연구에서는 커플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커플관계 만족도와 친밀감, 안정성을 포함하였다. 커플관계 만족도란 커플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을 일컫는 개념으로(이경성, 한덕웅, 2005), 많은 커플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커플관계 질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해왔다(연수진, 서수균, 2013; 이은지 등, 2013). 그러나 단일 차원으로서 주관적인 만족감은 커플관계의 복잡한 현상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분석의 단위가 개인의 지각이기 때문에, 커플관계의 상호성을 파악

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9). 이에 커플관계의 깊이와 상호 이해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커플관계 친밀감을 포함하였으며, 커플관계에서 친밀감이란,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 돈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이경희, 1998). 한편, 안정성이란 현재의 커플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플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음에도 외부 압력이나 대안의 부족으로 실제 이혼 실행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정은희,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은희(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커플관계 와해를 향한 주관적인 경향까지 포함하였으며, 관계를 끝내고 싶은 욕구와 관계 지속에 대한 회의감, 후회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차에 관한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설을 제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탐색적으로 성차를 살펴보았다. 이하의 기술에서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elf-reported Acceptance for Differences: SAD)’는 스스로 보고한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 점수를 의미하며, 응답자(‘나’)를 기준으로, 내가 평정한 나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₁)와 파트너 스스로 평정한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₂)를 포함한다.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partner's Acceptance for Differences: PAD)’은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자신의 지각 수준, 즉 파트너가 얼마나 다른을 잘 수용한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자신의 평정 점수를 의미하며, 내가 지각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PAD₁)와 파트너가 지각한 나의 다른 수

용 태도(PAD₂)를 포함한다.

가설 1.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₁, SAD₂) 및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PAD₁, PAD₂)은 자기 및 상대방의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자기효과는 남성에게서 상대방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SAD₂)가 높을수록, 내가 지각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PAD₁)는 높을 것이다. 즉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에서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할 것이다.

가설 3. 나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₁)가 높을수록, 내가 지각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PAD₁)는 높을 것이다. 이러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크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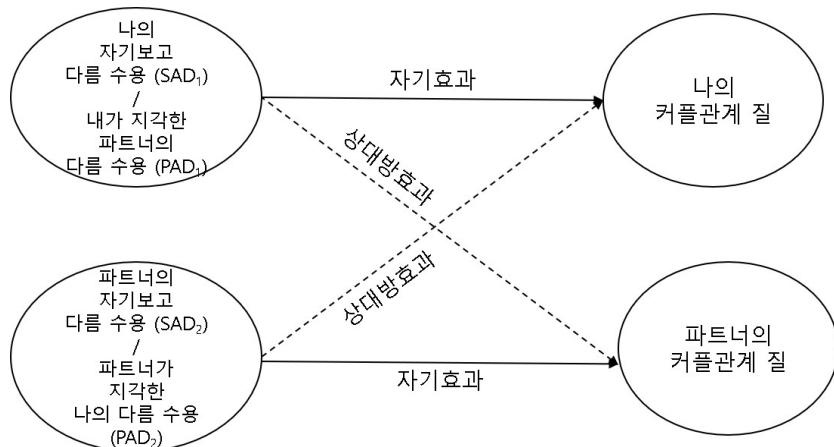


그림 1. 가설 1에 대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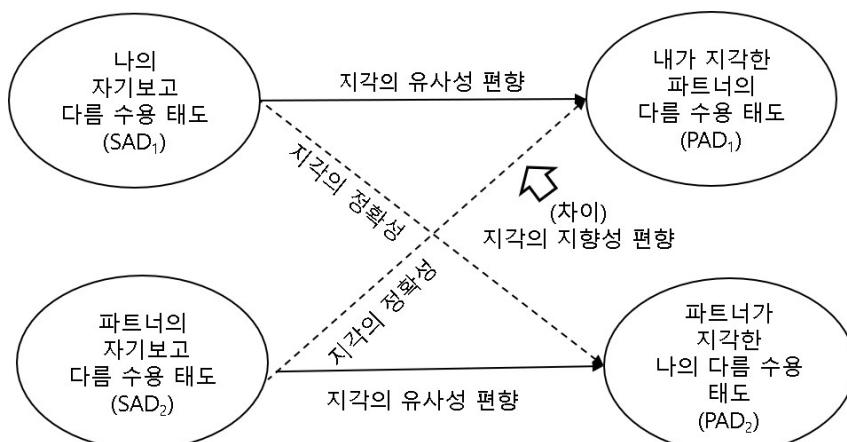


그림 2. 가설 2 지각의 정확성, 가설 3 지각의 유사성 편향,
가설 4 지각의 지향성 편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타날 것이다.

가설 4.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₂)보다 내각 지각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PAD₁)는 더 낮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 지향성 편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400명으로,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모집하였다. 만 18세~60세의 성인으로,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 중인 부부 100쌍(200명)과 1개월 이상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혼 커플 100쌍(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모집문건을 본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례비를 받았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92명, 미혼 커플 99쌍(198명), 부부 97쌍(194)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녀 각각 196명(50%)이었고,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7세, 표준편차는 11.61,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0세, 표준편차는 11.9로, 성별에 따른 연령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t(390) = 1.47$, $p = .141$, Cohen's $d = 0.15$. 참여자 중 미혼자 198명(50.5%)의 평균 연령은 28.0세, 표준편차는 7.60, 기혼자 194명(49.5%)의 평균 연령은 44.0세, 표준편차는 8.69였으며, 결혼상태에 따른 연령 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390) = 19.43$, $p < .001$, Cohen's $d = 1.96$.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았다(IRB No.

2007/002-016).

측정도구

커플관계 다른 수용 척도. 임아영과 이훈진(2020)이 IBCT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총 22문항, 7점 리커트 형식의 자기보고 척도로,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른을 수용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다른에 대한 인내(예: ‘나와 파트너의 차이를 견디기 어렵다.’), 다른에 대한 역지사지(예: ‘서로 달라서 내가 힘든 만큼 파트너도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다른에 대한 존중(예: ‘파트너가 나의 기준이나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파트너를 나의 기준에 맞게 바꾸고 싶다.’), 다른을 통한 성장(예: ‘서로의 차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에 대한 거리두기(예: ‘서로의 차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이러한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자 노력한다.’)가 이에 해당한다. 단일 차원으로서 총점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제안되었던 바(임아영, 이훈진, 2020),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합산한 총점을 자신의 커플관계 다른 수용 태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임아영과 이훈진(2020)의 연구에서 커플관계 다른 수용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커플관계 다른 수용 척도 문항을 파트너 평정용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게끔 수정하여 사용하였다.¹⁾ 자기보고용 커플관계 다른 수용 척도와 동일하게

1) AMOS 22를 사용하여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파트너 평정용 커플

총 22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자신의 파트너가 서로의 다른을 얼마나 잘 수용한다고 지각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예: ‘나의 파트너는 서로의 차이를 견디기 어려워한다.’, ‘나의 파트너는 내가 자신의 기준이나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를 자신의 기준에 맞게 바꾸고 싶어 한다.’, ‘나의 파트너는 서로의 차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커플관계 질. 커플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커플관계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커플관계 친밀감 척도는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희(1998)가 제작한 척도로,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친밀감은 파트너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상대의 부족함까지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정서적 친밀감은 상대에게 느끼는 심리적 가까움과 상호보완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성적 친밀감은 열린 마음으로 성을 관계 증진의 요소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요인별로 5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을 포함하기에, 부부라는 용어 대신 커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강지영과 이인수(2017)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커플관계 안정성 척도는 Booth 등(1983), 김미숙과 김명자(1990), 장춘미(2001)의 척도를 기반으로 정은희(2004)가 제작한 척도로, 미혼과 기혼 커플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된다. 문항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관계를 와해시키려는 경향 및 커플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커플관계에서 경험하는 유대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를 포함하고 있기에, ‘결혼생활’이라는 용어를 ‘커플생활’로 수정하였으며, ‘이혼이나 별거’라는 용어를 ‘이혼이나 별거, 이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커플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성과 한덕웅(2005)이 개발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과 기혼 커플 모두를 포함하기에, 이성친구라는 용어 대신 파트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경성과 한덕웅(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9,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

척도에 대한 기초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척도 별 성차와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에서 나타나는 지향성 편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

관계 다른 수용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자기보고용 척도와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기에, 자기보고용 척도와 동일한 5요인 모형을 가정하고,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요인 모형의 CMIN/DF는 3보다 적은 2.67로 나타났으며, TLI = .93, CFI = .94, RMSEA = .065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커플관계 질은 커플관계 친밀감, 커플관계 안정성, 커플관계 만족도 측정치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합산 점수 사용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2 프로그램을 통하여 커플관계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에 해당하는 세 개의 집단요인과 커플관계 질이라는 일반요인을 가정한 쌍요인(Bifactor)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MIN/df = 2.73으로 3보다 적게 나타났고(Kline, 2011), GFI = .97, TLI = .99, CFI = .99, REMSA = .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 변인 간 .76 ~ .88의 높은 상관을 보인 바, 세 변인의 합산점수를 커플관계 질 측정치로 활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자기보고 다음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음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호 영향, 그리고 파트너의 다음 수용 태도 지각에서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 및 유사성 편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APIM을 사용하였다(Kenny, 1996; Kenny et al., 2006). APIM은 상호의존적 짹(Dyadic) 자료의 쌍방 간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Kenny(1996)가 제안한 분석 모형으로, 연인이나 부부, 부모-자녀, 상담자-내담자 등과 같이 상호 비독립적인 관계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박효경, 김은하, 2017). 자기보고 다음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음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의 커플관계 질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각각에 대한 개별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쌍자료를 분석할 때, 이러한 개별 분석만으로는 양자 간의 상호의존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

다(Cook & Kenny, 2005). Kenny(2011)는 쌍자료에 대한 개별 분석 시 표본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 크기가 감소할 수 있고, 집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집단 간 차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쌍내 두 구성원의 일치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쌍자료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APIM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APIM에서 자신의 어떤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Actor effect)라 하고, 상대방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Kenny, 1996). APIM은 결합 회귀(Pooled regression)나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또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Kenn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으로도 APIM 분석이 가능하고,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쌍자료에 대한 직관적 설명이 가능한 다층모형을 사용했으며(Ledermann & Kenny, 2017), 커플 구성원을 커플이라는 상위 집단에 내재된 개인으로 간주하였다. Kenny(2015)가 제공하는 웹 기반 패키지에서 R을 이용한 일반화 최소 제곱(Generalized Least Squares) 회귀, 제한된 최대우도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Method)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는 하나의 커플이 동일한 고유번호를 가진 짹진 자료(pairwise data) 구조로 변환되었으며, 자기보고 다음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음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점수는 실제 변인 값의 평균으로 평균중심화하였다(West & Kenny, 2001).

결과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및 커플관계 질의 상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커플관계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 커플관계 질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연령과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각각 $r(392) = -.24, p < .001$, $r(392) = -.22, p < .001$. 연령 및 성별 통제 시, 결혼상태, 커플 유지 기간에 따른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플관계 질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에 비해 커플관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eta^2 = .018, F(1, 388) = 7.27, p < .01$.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그리고 커플관계 질 관련 변인 간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와 여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의 상관은 .6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와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는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다른 수용 태도와 .75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여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는 여성의 지각한 남성의 다른 수용 태도와 .80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신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_I)와 자기보고 커플관계 질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와 남성의 커플관계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도 여성의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종속변인	전체($N = 392$)		남($n = 196$)		여($n = 196$)		평균 차이	paired t
	M	SD	M	SD	M	SD		
다른 수용 태도(자기보고)	104.58	17.51	107.16	18.20	102.00	16.45	5.16	4.96***
다른 수용 태도 (파트너평정) ^a	101.42	18.74	101.19	18.46	101.64	19.06	-0.45	0.40
커플관계 친밀감	53.58	10.27	54.32	10.36	52.85	10.15	1.47	3.04**
커플관계 안정성	45.60	9.22	46.51	9.09	44.69	9.29	1.81	3.60**
커플관계 만족도	35.38	7.32	35.96	7.02	34.79	7.57	1.17	2.81***
커플관계 질	134.56	25.08	136.79	24.77	132.33	25.27	4.45	3.66***

^a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수준을 의미함.커플관계 질 = 친밀감 + 안정성 + 만족도. ** $p < .01$. *** $p < .001$.

표 2. 남녀의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과 커플관계 질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다름 수용 태도 (자기보고)											
1. 남성 다름 수용											
2. 여성 다름 수용		.64***									
다름 수용 태도 (파트너평정) ^a											
3. 남성지각_여성다름수용 ^b	.75**	.69***									
4. 여성지각_남성다름수용 ^c	.67***	.80***	.62***								
5. 남성 친밀감	.64***	.54***	.64***	.58***							
6. 여성 친밀감	.55***	.67***	.53***	.69***	.77***						
7. 남성 안정성	.69***	.58***	.61***	.55***	.76***	.59***					
8. 여성 안정성	.61***	.78***	.55***	.72***	.62***	.76***	.70***				
9. 남성 만족도	.68***	.53***	.58***	.53***	.79***	.61***	.88***	.65***			
10. 여성 만족도	.61***	.75***	.55***	.69***	.65***	.80***	.65***	.89***	.66***		
11. 남성 커플관계 질	.72**	.59***	.66***	.60***	.92***	.71***	.94***	.71***	.94***	.70***	
12. 여성 커플관계 질	.63***	.78***	.58***	.75***	.73***	.92***	.69***	.94***	.68***	.95***	.76***

^a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수준을 의미함. ^b남성이 평정한 여성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 수준. ^c여성이 평정한 남성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 수준.

커플관계 질 = 친밀감 + 안정성 + 만족도. *** $p < .001$.

(SAD₂)와 자신의 커플관계 질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는 여성의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여성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는 남성의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점수 역시 자기보고 커플관계 질 및 파트너가 보고한 커플관계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다름 수용 태도는 남성의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여성이 보고한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다름 수용 태도는 여성의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남성이 보고한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모형을 통한 APIM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과 그림 3, 4에 제시하였다. 일부 변인에서 연령과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던 바, 연령과 결혼상태를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신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SAD₁)가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SAD₂)가 자신의 커

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도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여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는 남성의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남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는 여성의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Z = 1.24, p = .22, Z = -0.10, p = .92$.

다음으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지각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PAD_I)가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다른 수용 태도는 남성이 보고한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다른 수용 태도는 여성이 보고한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효과도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며, 파트너가 지각한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PAD_D)는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지각한 남성의 다른 수용 태도는 남성이 보고한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다른 수용 태도는 여성이 보고한 커플관계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표 3.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남녀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PIM 다층모형 분석 결과

구분	예측변인	준거변인	효과	추정치/ 계수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남성	남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남성 커플관계 질	자기효과	0.97	.67***	0.80	1.14
	여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남성 커플관계 질	상대방효과	0.32	.22***	0.16	0.47
여성	여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여성 커플관계 질	자기효과	0.80	.55***	0.63	0.96
	남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여성 커플관계 질	상대방효과	0.33	.23***	0.15	0.51
전체	자기 다른 수용	자기 커플관계 질	자기효과	0.88	.62***	0.79	0.98
	상대방 다른 수용	자기 커플관계 질	상대방효과	0.32	.23***	0.23	0.42
남성	남성지각_여성다름수용 ^a	남성 커플관계 질	자기효과	0.83	.62***	0.68	0.99
	여성지각_남성다름수용 ^b	남성 커플관계 질	상대방효과	0.25	.19**	0.09	0.41
여성	여성지각_남성다름수용	여성 커플관계 질	자기효과	0.63	.47***	0.45	0.80
	남성지각_여성다름수용	여성 커플관계 질	상대방효과	0.39	.30***	0.23	0.56
전체	자기지각_상대다름수용	자기 커플관계 질	자기효과	0.73	.54***	0.64	0.82
	상대지각_자기다름수용	자기 커플관계 질	상대방효과	0.32	.24***	0.23	0.42
				k	0.44	0.31	0.60

주. ^a남성이 평정한 여성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수준. ^b여성이 평정한 남성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수준. k ratio는 자기효과에 대한 상대방효과의 비율을 의미함. ** $p < .01$. *** $p < .001$.

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Z = 1.53, p = .13, Z = -1.04, p = .30$.

종합하면,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을 구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미혼 집단의 경우, 자신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_I)가 자

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남성: $\beta = .74, p < .001$, 여성: $\beta = .54, p < .001$,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SAD_D)가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 $\beta = .14, p = .08$, 여성: $\beta = .15, p = .15$. 반면, 기혼 집단에서는 자기효과가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고, 남성: $\beta = .59, p < .001$, 여성: $\beta = .61, p < .001$, 상대방효과도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남성: $\beta = .32, p < .001$, 여성: $\beta = .25, p < .01$. 한편,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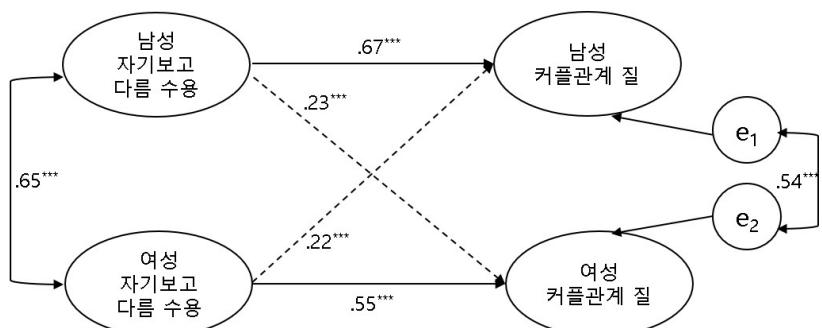


그림 3.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PIM 모형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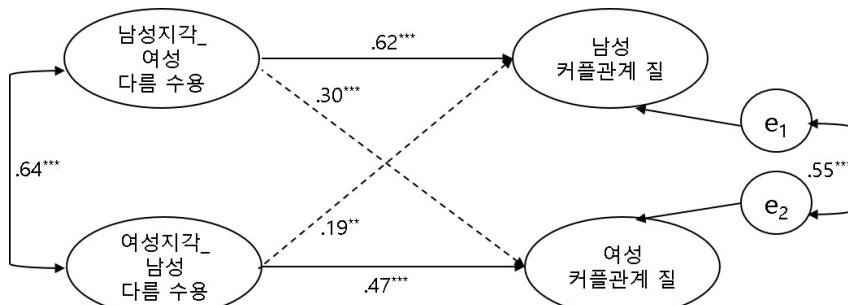


그림 4.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PIM 모형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미혼과 기혼 집단 모두에서 남녀의 자기효과는 유의하였고, 미혼 남성: $\beta = .56, p < .001$, 미혼 여성: $\beta = .54, p < .001$, 기혼 남성: $\beta = .65, p < .001$, 기혼 여성: $\beta = .42, p < .001$, 상대방효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성: $\beta = .24, p < .01$, 미혼 여성: $\beta = .23, p < .05$, 기혼 남성: $\beta = .18, p < .05$, 기혼 여성: $\beta = .33, p < .001$.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의 정확성 및 유사성 편향

가설 2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층모형을 통한 APIM 분석을 실시하고, 다른 수용 태도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예측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지각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남성이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를 높게 보고할수록,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다른 수용 태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를 높게 보고할수록,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다른 수용 태도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는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Z = -1.37, p = .17$.

지각의 유사성 편향과 관련하여, 남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다른 수용 태도 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다른 수용 태도 점수도 높아졌다. 유사성 편향에서 성차는 유의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사성 편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Z = 2.32, p < .05$. 이로써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혼과 기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미혼 집단에서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였고, 남성: $\beta = .25, p < .001$, 여성: $\beta = .40, p < .001$ 지각의 유사성 편향도 남녀 모두 유의하였다, 남성: $\beta = .71, p < .001$, 여성: $\beta = .54, p < .001$. 기혼 집단에서도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남성: $\beta = .31, p < .001$, 여성: $\beta = .39, p < .001$. 지각의 유사성 편향도

표 4. 파트너 다른 수용 태도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

효과/ 예측변인	준거변인	추정치/ 계수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지각의 정확성					
남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 여성지각_남성다름수용 ^a	0.41	.38***	0.28	0.53
여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 남성지각_여성다름수용 ^b	0.29	.27***	0.18	0.40
지각의 유사성 편향					
남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 남성지각_여성다름수용	0.73	.67***	0.61	0.85
여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 여성지각_남성다름수용	0.54	.50***	0.42	0.65

^a여성이 평정한 남성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수준. ^b남성이 평정한 여성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수준.

*** $p < .001$.

남녀 모두 유의하였다, 남성: $\beta = .63$, $p < .001$, 여성: $\beta = .41$, $p < .001$.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의 지향성 편향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 시에 나타나는 지향성 편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와 파트너가 지각한 다른 수용 태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지각할 때, 파트너의 자기보고 수준보다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더 낮게 지각하는 부정적 지향성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4는 여성에서만 지지되었다. 즉, 여성은 남성의 자기보고에 비해, 남성의 다른 수용 태도를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였으며, 평균차이 = -5.52 , $t(195) = -5.24$, $p < .001$, 이는 곧 남성은 여성 파트너가

지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를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다른 수용 태도와 여성의 자기보고 수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차이 = -0.81 , $t(195) = -0.84$, $p = .41$. 결과적으로, 지향성 편향에서 성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차이 = -4.70 , $t(195) = -2.73$, $p < .01$.

추가적으로, 이러한 지향성 편향이 커플관계 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커플관계 질 상위 50% 집단과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에서는 커플관계 질 상, 하 집단에서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모두 유의하였으나, 커플관계 질 하 집단에서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 -7.47 , $t(99) = -5.40$, $p < .001$. 남성의 경우, 커플관계 질 상 집단에서는 지향성 편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커플관계 질 하 집단에서는 부정

표 5. 남녀의 지향성 편향 검증을 위한 대응표본 t -test 결과

구분	변인	변인	<i>M</i>	<i>SE</i>	<i>t</i>
여성					
여성 전체 (<i>n</i> = 196)	여성지각_ 남성다름수용 ^a	- 남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5.52	14.74	-5.24***
커플관계 질 상 집단 (<i>n</i> = 96)	여성지각_ 남성다름수용	- 남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3.48	15.43	-2.21*
커플관계 질 하 집단 (<i>n</i> = 100)	여성지각_ 남성다름수용	- 남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7.47	13.84	-5.40***
남성					
남성 전체 (<i>n</i> = 196)	남성지각_ 여성다름수용 ^b	- 여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0.81	13.60	-0.84
커플관계 질 상 집단 (<i>n</i> = 98)	남성지각_ 여성다름수용	- 여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1.37	14.60	0.93
커플관계 질 하 집단 (<i>n</i> = 98)	남성지각_ 여성다름수용	- 여성 자기보고 다른 수용	-2.30	12.21	-2.43*
지향성 편향 성차	지향성 편향(여성)	- 지향성 편향(남성)	-4.70	24.10	-2.73**

^a여성이 평정한 남성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수준. ^b남성이 평정한 여성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수준.

* $p < .05$. ** $p < .01$. *** $p < .001$.

적 지향성 편향이 유의하였다, 평균차이 = -2.30, $t(97) = -2.43$, $p < .05$. 즉 남성은 자신의 커플관계 질이 낮을 경우에만, 여성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를 파트너의 자기보고 수준에 비해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미혼 집단에서는 여성의 부정적 지향성 편향은 유의한 반면, 평균차이 = -6.74, $t(98) = -4.39$, $p < .001$, 남성의 부정적 지향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차이 = 1.29, $t(98) = 0.91$, $p = .36$. 기혼 집단에서는 여성의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유의하였고, 평균차이 = -4.27, $t(96) = -2.97$, $p < .01$, 남성의 부정적 지향성 편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차이 = -2.96, $t(96) = -2.27$,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커플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진실과 편향 모델을 바탕으로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를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설 1에서는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할 것이며, 자기효과는 남성에게서, 상대방효과는 여성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였고,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디충모형을 통한 APIM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이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도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즉 자신의 다름 수용 태도가 높고,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커플관계 질이 높아지며,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가 높고, 파트너가 나를 수용적이라고 긍정 지각할수록 자신의 커플관계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에 비해 일관되게 크게 나타났던 바, 자신의 다름 수용 태도와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커플관계에서 성인애착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정, 조영주, 2017), 자기분화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커플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김아영, 조영주, 2018).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공감 같은 상호작용 변인에서도 관찰되었는데,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공감이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공감 보다 자신의 관계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주, 2020). 이를 통해 볼 때, 커플관계에서 자신이 적응적인 특질과 태도, 행동 패턴을 획득하고 발휘하는 것이,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일차적으로 중대하며, 파트너의 특성과 태도로부터도 부가적으로 영향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미혼과 기혼 집단을 구분해서 분석했을 때, 자기보고 다름 수용 태도가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미혼과 기혼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나,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가 자

신의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기혼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미혼자의 커플관계 질은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혼자의 경우,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커플관계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미혼 커플보다 부부는 공유하는 일상의 범위가 넓고, 경제 관념, 양육방식, 생활습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Neff & Karney, 2005; 한소영, 신희천, 2007; 임아영, 이훈진, 2020). 따라서 기혼자의 경우, 파트너가 서로의 다른에 대해 수용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자신의 커플관계 질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설 1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과는 남성에게서, 상대방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지지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에서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커으며, 성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남성은 자기 자신의 특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큰 반면, 여성은 상대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며, 이는 남성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성향, 그리고 관계 내 권력 구도 같은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조영주, 2017, 2019; Priem et al., 2009; Thomas & Fletcher,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혹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다른 수용 태도는 IBCT의 수용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IBCT에서는 파트너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보다 수신자인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Jacobson & Christensen,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수용 개념은 본질적으로 파트너의 특성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방점이 찍힌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커플의 다른 수용 태도를 증진하는 개입은 자신 및 파트너의 커플관계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반복검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West와 Kenny(2011)가 제안한 진실과 편향 모형을 바탕으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에서의 정확성,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향성 편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가설 2에서는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파트너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높게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지지되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지각할 때, 파트너의 실제 다른 수용 태도 수준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의 정확성 측면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관계에 민감한 여성의 남성보다 지각의 정확성이 높다는 견해(Thomas & Fletcher, 2003)가 공존하였으나, Fletcher와 Kerr(2010)는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파트너를 정

확하게 지각하고자 하는 동기와 능력 면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본 연구 결과는 Flectcher와 Kerr(2010)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설 3에서는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지지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준거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과 세상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조영주, 2019; Lemay et al., 2007). 이러한 경향은 투사의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친밀한 관계에서는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하여 투사가 나타날 수 있다(Lemay et al., 2007). 즉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가 높을 때에는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도 높다고 지각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가 낮을 때에는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가 낮다고 지각함으로써 죄책감을 줄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조영주, 2020, 2017; Caughlin & Scott, 2010; Priem et al., 2009). 선행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파트너의 특성이나 상태에 관심을 적게 기울이며, 자신과 유사한 방향으로 상대를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에 있어서도 남성은 자기참조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가설 4는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 지각 시 나타나는 부정적 지향성 편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고,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파트너가 보고한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점수에 비해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부정적 지향성 편향은 여성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다른 수용 태도는 남성의 자기보고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공감 지각에 있어서 여성에서만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관찰된 선행 연구(조영주, 2020)와 일치하는 결과로, Flectcher와 Kerr(2010)는 커플관계에서 상호작용 특질을 지각할 때,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일반적이며 여성에게서 부정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때, 관계에 노력을 덜 기울이거나 상대의 반응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상대에 대한 낙관적 지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지각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를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성은 여성이 지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다른 수용 태도를 과대 지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남성의 자기 지각이 파트너의 지각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남성의 자기보고 다른 수용 태도 점수는 여성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남성의 긍정적인 자기보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임아영, 이훈진, 2020, 202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른 수용 태도 측정에 있어서 자기보고 뿐 아니라, 파

트너의 지각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커플관계 내의 역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커플관계 질의 수준 및 결혼상태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커플관계 질 상하 집단과 미혼, 기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여성은 커플관계 질 상하 집단에서 모두 부정적 지향성 편향을 보였으나, 커플관계 질이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더욱 커졌고, 남성은 커플관계 질이 낮은 집단에서만 부정적 지향성 편향을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커플관계 질이 낮을 경우, 상대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되어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커플관계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커플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큰 여성이 남성이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Javadivala et al.,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여성에서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두드러지는 것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크기 때문에,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낮게 지각할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 커플관계 질이 개선되면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도 향상되는지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미혼과 기혼 집단에서 부정적 지향성 편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기혼 집단에서만 부정적 지향성이 유의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보다 서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남성은 여성 배우자로부터 상황 개선을 위한 변화 요구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Jacobson & Christensen, 1996),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를 더 낮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갈등 수준 및 파트너의 요구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부정적 지향성 편향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커플 연구의 특성상 커플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설문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부부상담을 받고 있거나 불화가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치료를 찾은 임상 집단 및 준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용으로 제작된 커플관계 다른 수용 척도에 대응되게 파트너 평정용 문항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생략하였기에 척도의 타당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파트너 평정용 커플관계 다른 수용 척도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자기보고용 척도와 함께 파트너의 다른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 수준을 살펴보는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 수의 제한으로 종교, 학력, 자녀유무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분석에 모두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커플 유지 기간에 따른 집단 차이는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일부 변인에서 확인되어, 연령과 결혼상태를 통제하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참여자를 확보하여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는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하위요인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다층 모형을 통한 APIM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커플관계 질을 반영하는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에 대해서도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할 경우, 다름 수용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커플관계 친밀감, 안정성, 만족도를 각각 측정 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각 하위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측정오차를 고려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의 문항 수에 비하여 표본 수가 적어 구조방정식 모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제약이 없는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적용함으로써, 하위요인별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설문 자료는 동일 시점에 측정된 것으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단언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이자간 평정을 시행함으로써 자기보고 검사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검증함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역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남녀 모두 자신의 다름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상대의 다름 수용 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커플관계 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신의 다름 수용 태도 향상이 실제로 커플관계 질의 향상과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 지각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 지각에 있어서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향성 편향을 검증함으로써, 진실과 편향 모델을 확장하고 반복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담 장면에서, 커플의 다름 수용 태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향상 정도가 정확한 지각을 바탕으로 파트너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커플관계 질이 낮은 커플에서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 지향성 편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지영, 이인수 (2017). 단절 및 거절도식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8(2), 351-373.
 강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123-139.
- 김미숙, 김명자 (1989).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8(1), 171-183.
- 김아영, 조영주 (2018).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567-588.
- 박효경, 김은하 (2017). 미혼커플의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8(6), 203-217.
- 연수진, 서수균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 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411-431.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복 (2006).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희, 임성문 (2013). 통합적 행동부부치료에 기초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과 개발과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49-476.
- 이은지, 서영석, 백근영, 최바울, 김애란, 왕윤정 (2013).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와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27-250.
- 임아영, 이훈진 (2020). IBCT에 기반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4), 599-632.
- 임아영, 이훈진 (2021).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과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3), 123-149.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30.
- 정은희 (2004). 원가족문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17-443.
- 조영주 (2019). 부부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67-85.
- 조영주 (2020).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과 커플 관계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941-1965.
- 조영주, 심은정 (2017). 남녀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179-202.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Berger, R., & Hannah, M. (1999). *Handbook of preventive approaches in couple therapy*. Brunner/Mazel.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Caughlin, J. P., & Scott, A. M. (2010).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inter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 W. Smith & S. R. Wilson (Eds.), *New directions in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research* (pp. 180–200). Sage.
- Coleman, L., Mitcheson, J., & Lloyd, G. (2013). Couple relationships: Why are they important for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Visiting*, 1(3), 168–172.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ramer, D., & Jowett, S. (2010). Perceived empathy, accurate empath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3), 327–349.
- Christensen, A., & Jacobson, N. S. (1997). *Frequency and acceptability of partner behavior inventory.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California.
- Davis, M. H., & Oathout, H. A.,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97–410.
- Fletcher, G. J., & Kerr, P. S. (2010). Through the eyes of love: reality and illu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3(4), 627–658.
- Hall, J. A. (1984). *Nonverbal sex differences: Communication accuracy and expressive styl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ackson, J. B., Miller, R. B., Oka, M., & Henry, R.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 meta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1), 105–129.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s*. W.W. Norton & Company.
- Jacobson, N. S., Christensen, A., Prince, S. E., Cordova, J., & Eldridge, K. (2000).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an acceptance-based, promising new treatment for couple discor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2), 351–355.
- Javadivala, Z., Allahverdipour, H., Jafarabadi, M. A., Azimi, S., Gilani, N., & Chatta, V. K. (2021). Improved couple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with marriage and relationship program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ystematic Reviews*, 10(1), 1–14.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y, D. A. (2011). Commentary: Dyadic analyses of family data.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6(5), 630–633.
- Kenny, D. A. (2015). An interactive tool for the estimation and test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multilevel modeling [software]. Available from https://davidakenny.shinyapps.io/APIM_MM/.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Guilford press.
- Kline,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ress.
- Larned, A. G. (2006). *Examining expressed empathy, received empathy, and a need for power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Lynch School of Education.
- Ledermann, T., & Kenny, D. A. (2017). Analyzing dyadic data with multilevel modeling vers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tale of two metho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4), 442–452.
- Lemay, E. P., Jr, Clark, M. S., & Feeney, B. C. (2007). Projection of responsiveness to needs and

- the construction of satisfying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34-853.
- Mairal, J. B. (2015).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BCT) as a third-wave therapy. *Psicoterapia*, 27(1), 13-18.
- Murray, S. L., Holmes, J. G., Bellavia, G., Griffin, D. W., & Dolderman, D. (2002). Kindred spirits? The benefits of egocentrism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63-581.
- Neff, L. A., & Karney, B. R. (2005). To know you is to love you: The implications of global adoration and specific accuracy for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480-497.
- Priem, J. S., Solomon, D. H., & Steuber, K. R. (2009). Accuracy and bias in perceptions of emotionally supportive communication in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6(4), 531-552.
- Thomas, G., & Fletcher, G. J. (2003). Mind-reading accuracy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essing the roles of the relationship, the target, and the ju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79-1094.
- West, T. V., & Kenny, D. A. (2011). The truth and bias model of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18(2), 357-378.

원고접수일: 2022년 7월 11일

논문심사일: 2022년 7월 28일

게재결정일: 2022년 8월 2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2. Vol. 27, No. 5, 719 - 743

Associations Among Self-Reported Acceptance for Differences, Perception of Partner's Acceptance for Differences, and Couples' Relationship Quality

Ah Young Lim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self-reported Acceptance for Differences(AD) and perception of partners' AD on the quality of couples' relationship, and explored perceptual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partners' AD in a sample of 200 couples. The actor effects as well as partner effects of self-reported AD, as well as the perception of partners' AD on couple relationship quality, were found among men and women. The actor effect was greater than the partner effect. Additionally, the Truth and Bias (T&B) model was administer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self-reported AD, as well as the perception of partners' AD. Results indicate a perceptual similarity bias, as well as a perceptual accuracy in men and women. The gender difference in perceptual accuracy was insignificant, and males showed greater bias than females, in perceptual similarity bias. Negative directional bias was found only in wome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discussed.

Keywords: 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perceptual accuracy, perceptual bias, couple relationship quality